

무심은 모든것 수용... 완성된 상태

관세음보살은 큰 자비를, 대세지보살은 큰 지혜를 상징한다. 유마는 '정명(淨名)'이란 뜻이다. 청정(淨)이란 성품을 말하고, 이름(名)이란 모습을 말한다.

사실 보살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애 작용하는 것을 세상에 말하려다보니 이름을 빌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하고 드러낸 것뿐이다.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불법의 올바른 눈을 떠야 한다.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치만 드러낼 뿐, 실질적인 가치를 알고 믿는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자비, 지혜 그리고 청정이 모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기 성품 안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품과 모습이 다르지 않으므로, 정명이라 한 것이다. 여러 대보살들로 표현된 덕도 사람마다 모두 가지고 있어 한마음을 여의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이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유마가사 모두 성품의 현현일 뿐이다.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에서, 인연 따라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된다. 그렇게 천차만별의 모습이 되었지만, 모두가 성품을 여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알면 받아들이지만, 모르면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한다. '관세음보살 만나야지.' 혹은 '염불, 기도 열심히 해서 염피관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야지.' 하는 것들은 모두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모두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된 장치에 불과한 것인데, 경의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기 식대로 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여여한 성품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모두 그 속의 일인 줄 알아서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돌이 아님을 깨닫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바탕을 열고 쓰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바로 쓰고 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염피관음력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문수보살의 지혜로 전환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의 모양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면서 모두 도를 등지고 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에 매달리면서, 도를 등지는 줄도 모르고 등진다. 본래 여여한 성품의 근본실상을 한 생각 돌이켜서 자각하는 순간, '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에 이른 것을, 허망한 모양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모양을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저 내려놓고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유마가사 모두 성품의 현현일 뿐이다. 시작과 끝이 동시인 모습 없는 모습에서, 인연 따라 관세음보살도 되고, 보현보살도 되고, 문수보살도 된다. 그렇게 천차만별의 모습이 되었지만, 모두가 성품을 여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 까닭을 알면 받아들이지만, 모르면 찾고 구하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한다. '관세음보살 만나야지.' 혹은 '염불, 기도 열심히 해서 염피관음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야지.' 하는 것들은 모두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다. 경전에 나와 있는 이런 말들이 모두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된 장치에 불과한 것인데, 경의 실체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자기 식대로 보고 실천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깨달음은 한 생각 돌이켜서 본래 여여한 성품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어떻게 비춰진다 하더라도, 모두 그 속의 일인 줄 알아서 담담하게 수용할 뿐이다.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성품이 돌이 아님을 깨닫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남을 도와가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마음바탕을 열고 쓰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마음을 바로 쓰고 살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염피관음력으로,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문수보살의 지혜로 전환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으려 하지 않고, 마음 밖의 모양에 집착하고 경계를 취하면서 모두 도를 등지고 있다.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과 보살님에 매달리면서, 도를 등지는 줄도 모르고 등진다. 본래 여여한 성품의 근본실상을 한 생각 돌이켜서 자각하는 순간, '이 마음이 변해서 지금에 이른 것을, 허망한 모양에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모양을 짓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저 내려놓고 열심히 살면 그만이다.

수불 스님의 전심법오 선행 (7)



범어사 주지

진귀한 보물도 탐하지 않고

오물도 싫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이 곧 무심

무심할 수 있으면 바로 究竟

평상심이 도라고 말하는데

평상심을 만들거나 구하면

평상심과는 멀어진다

물들지 않은 마음이 평상심

보살은 모습이 없다

관음·문수·보현·유마는

성품의 현현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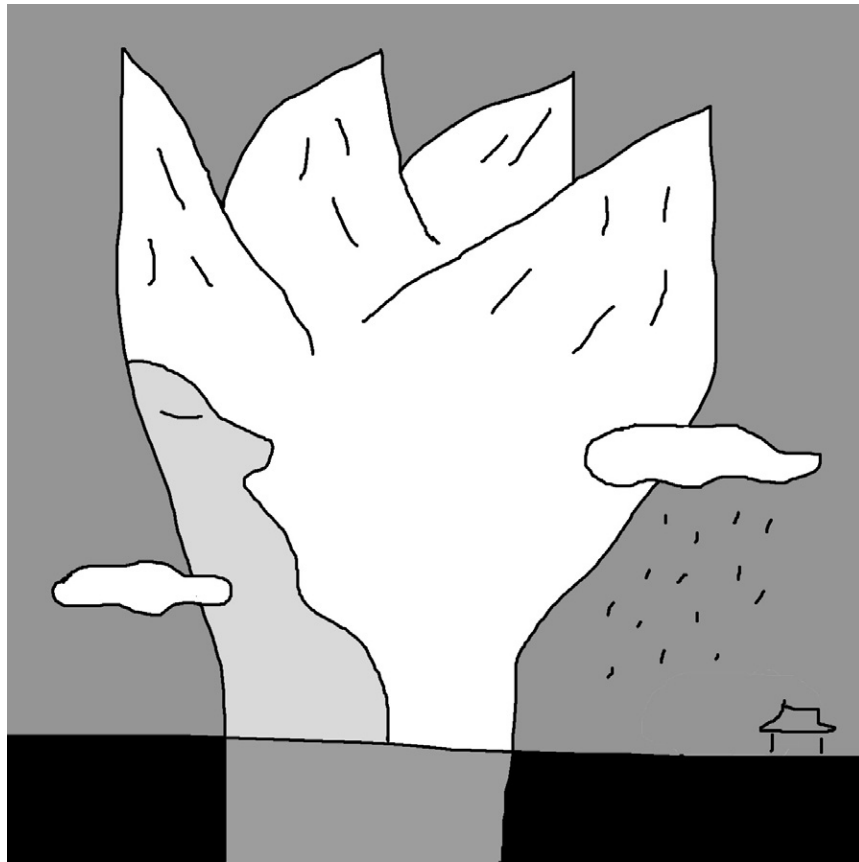
경전의 말씀은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

"깨닫지 못하면

불보살님에 매달려

도를 등지게 된다"



그림·박구원

갸저스 강의 모래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 하셨다.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제석, 범천 및 천신들이 밟고 지나가도 기뻐하지 않는다. 또한 소, 양, 벌레, 개미 등이 밟고 지나가도 성내지 않는다. 이 모래는 진귀한 보물이나 향도 탐하지 않고, 분뇨와 오물이라고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의 마음이다. 모든 모습을 떠난 곳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시 차별이 없다. 단지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경(究竟)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적하여 무심할 수 없다면, 여러 겹 동안 수행해도 마침내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연가·보살 삼승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어 헤라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되면서 삶의 질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증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확실히 해서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생각이 차별을 만들다보면 잊게 된다. "나는 어리석은데 어떻게 내가 부처와 조금도 닮음이 없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은 몸통아리에 집착한 소리다. 실상 자리에서 보았을 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허망한 몸통아리를 믿으라는 말이 아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믿으니, 그만 마구니가 되고 귀신한테 흘리는 격이 된다. 이 자리는 성품만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 차별된 경계가 나타나든지 말든지 근본을 찌르면 그만일 뿐, 만들어진 경계에 생각이 꼬달려서 안 된다.

이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10년·10주·10행·10회향에 이르러서 무심이 되는 사람도 있으며, 10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는 사람도 있다.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두고 증득할 것이 없다. 참으로 얻을 것도 없지만,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

본래 무심인 자리를 확연히 깨달으면 이미 성품을 본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무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만들려고 힘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마치 있는 그림자도 다 수용하지 못하면서, 없는 그림자를 다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⑦



이제, 수보리여, 보살승에 나아간 자는 이와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

가능성의 정치철학

옛스님들의 글을 읽다 보면,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但不爲也, 非弗能也]"라는 구절을 자주 만나게 된다. 짧지만, 그만큼 울림이 큰 명언(名言)이다. 그런데 나는 작년 여름 〈맹자〉 강의를 들으면서, 비로소 그것이 맹자의 절창(絶唱)임을 알게 됐다.

짧지만, 그렇기에 더욱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맹자의 말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다 아는 것처럼, 맹자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무력(武力)에 의지한 정치가 아니라 인의(仁義)에 의지하는 정치를 펼치라는 이야기를 하러 다녔던 분이다. 여러 나라의 정치가를 만났다.

그러나 그 정치가들의 그릇(根柢, 根柢)에 맹자는 늘 답답해했다. 겨우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롭게 하실 수 있으냐?" 이런 질문이나 했기 때문이다. "하릴 이로우를 말씀하시나이가?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라는 식으로, 맹자는 그들을 논박(論駁)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그 정치가들은 전부 그들의 현실적 능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그 형편에서는 이로우거나 부국강병책에 더욱 마음이 끌렸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맹자는 달랐다. 그가 보기에 어떤 정치가일지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는다면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어질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어질 수 있고, 의롭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맹자의 왕도(王道)정치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그렇게 맹자는 확신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을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맹자는 늘 그것이 안타까웠다. "다만 하지 않을 뿐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맹자는 거기서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은산철벽(銀山鐵壁)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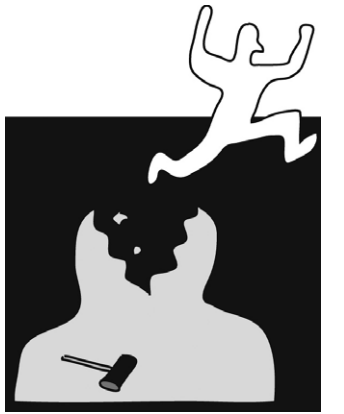
발심의 초월주의

맹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는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는 것을 발심(發心)이라 말한다. 비유하자면, 내 능력은 사실 아파트 1층 정도의 높이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믿기 하려는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게 되면 15층 아파트의 15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단박에 말이다. 그 발심의 내용을 〈금강경〉은 "위없이 높

고 올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맹자의 그토록 간곡한 호소에 대하여, 누가 "네, 선생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호응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내 〈맹자〉 공부가 완독(完讀)이 아니라 발체독(拔萃讀)이었기에 그 점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쉽게 그런 정치가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랬더라면 그 어디선가 일찍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났을 터이다.

그렇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중생이다. 발심하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1층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뿐이다. 정말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제발 나



그림·박구원

를 그냥 여기 두라, 고 말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다. 그러면서 "내게는 능력이 없다"고 변명한다. 이는 중생들의 은산철벽이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려 했을 뿐이지"라고 하면서,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범상한 능력을 초월하게 된다. 발심하는 그 순간이 곧 깨달음의 순간이라 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금강경〉의 질문자 수보리는 "발심한 사람들의 (발심 이후의) 수행법"을 부처님께 여쭙었다. 물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발심한 사람들의 수행법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한껏 끌어올리고 난 뒤에 〈금강경〉을 읽어야 한다. 바로, 지금! 그렇게 발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리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불교입문, 부처님상에대응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18:30 ~ 19:50 · 2교시: 20:10 ~ 21:30	· 입학원서 1부 (5,000원) · 반영항목사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I · II	화	본교 전공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전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전공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18:00 ~ 19:20 · 2교시: 19:30 ~ 20:50 · 3교시: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영항목사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신촌 성통사 : 02.336.2052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로 명화사 : 02.854.0196 망우동 삼통사 : 02.496.3803 성남 화성사 : 031.745.1482 일산 화성사 : 031.905.2912	평택 법장사 : 031.655.9090 수원 용광사 : 031.255.4105 구리 금성사 : 031.563.9364 안양 대인사 : 031.459.3666 안산 월광사 : 031.419.5048 부천 천화사 : 032.671.5353 군포 성락사 : 031.392.0924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까지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서울金剛佛敎大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과가 준비되어 있다.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학 장 : 성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법패·작법무-
불교예술평대학

* 교 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평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모집학과 : 사미과, 사십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성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님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안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